
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| 보 도 자 료 | | | |
| | 보도 | 2018.08.27(월) | 배포 | 2018.08.27(월) |
| 담당부서 | 투자운용본부 구조혁신팀 | 연락처 | 김태수 팀장 (02-2090-9121) | |

제 목 : 기업구조혁신펀드,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**쟁(場)을 열다**

1 추진배경 및 펀드 재원

-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(대표이사 이동춘, 이하 “한국성장금융”)는 8월 27일(월),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「기업구조혁신펀드」 하위펀드 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.
 -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기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방식에서 탈피, 민간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,
 - 전체 모(母)펀드 규모는 5,415억원 규모로(Capital call 방식),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, 성장사다리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다.
 - 시중은행에서는 국민·NH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은행이 참여하였고,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산업·수출입·기업은행·캠코가 동참하였으며,
 - 모(母)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이 운용중인 성장사다리펀드도 공동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하위펀드의 결성 가능성을 제고하였다.

2 단계별 출자사업 추진

- 본 출자사업은 총 2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, 기업 및 운용사의 니즈(Needs)를 반영하여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 방식의 출자사업을 진행한다.

< 기업구조혁신펀드 2018년(1차) 출자사업 개요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블라인드펀드 | 프로젝트펀드 | 계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총 출자금액 | 250,000 | 141,500 | 391,500 |
| 기업구조혁신펀드 | 244,229 | 138,234 | 382,463 |
| 성장사다리펀드 | 5,771 | 3,266 | 9,037 |

- 블라인드펀드는 모(母)펀드에서 총 2,500억원을 출자하여 최소한 5,000억원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며, 운용사는 3개사를 선정할 예정
- 블라인드펀드와는 별개로, 프로젝트펀드에 1,415억원을 출자하여 최소한 2,830억원의 자금이 턴어라운드(Turn-around)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예정
 - 프로젝트펀드는 투자대상 기업을 사전에 정하고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투자집행이 기대되며,
 - 공고일 이후부터 출자재원(1,415억원)이 소진될 때까지 개별 접수를 받아 펀드 출자 여부를 결정하게 됨

3 시장친화적 펀드 구조 설계

- 한국성장금융은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면서 추구해온 혁신적인 시장 관행 개선을 위한 원칙들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펀드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펀드 구조를 설계하였다.
 -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모(母)펀드는 하위펀드 조성 시 민간자금이 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ⁱ⁾중·후순위를 부담하여 민간자본의 출자부담을 완화하였다.
 - ② 또한,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선정운용사(GP)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수준 비율에 따라 ⁱⁱ⁾관리보수 구조 차별화 및 ⁱⁱⁱ⁾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보수구조를 도입하였고,

- 특히 성과보수 산정시 ^{iv)}풀캐치업(Full-Catch up)* 방식을 제안운용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, 역량있는 운용사들이 본 출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.

* 풀캐치업 방식(Full Catch-up) : 하위펀드 운용 결과 일정 기준수익률(예시:8%)을 초과하는 이익 발생시, 펀드 전체 이익의 일정비율(예시:20%)을 운용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구조

③ 사전적 매칭은 물론 ^{v)}사후적 매칭*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자금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운용사(GP)들의 조속한 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을 지원하였다.

* 사전적 매칭 : 결성시한까지 모펀드 출자금액의 100%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 완료한 후, 하위펀드를 결성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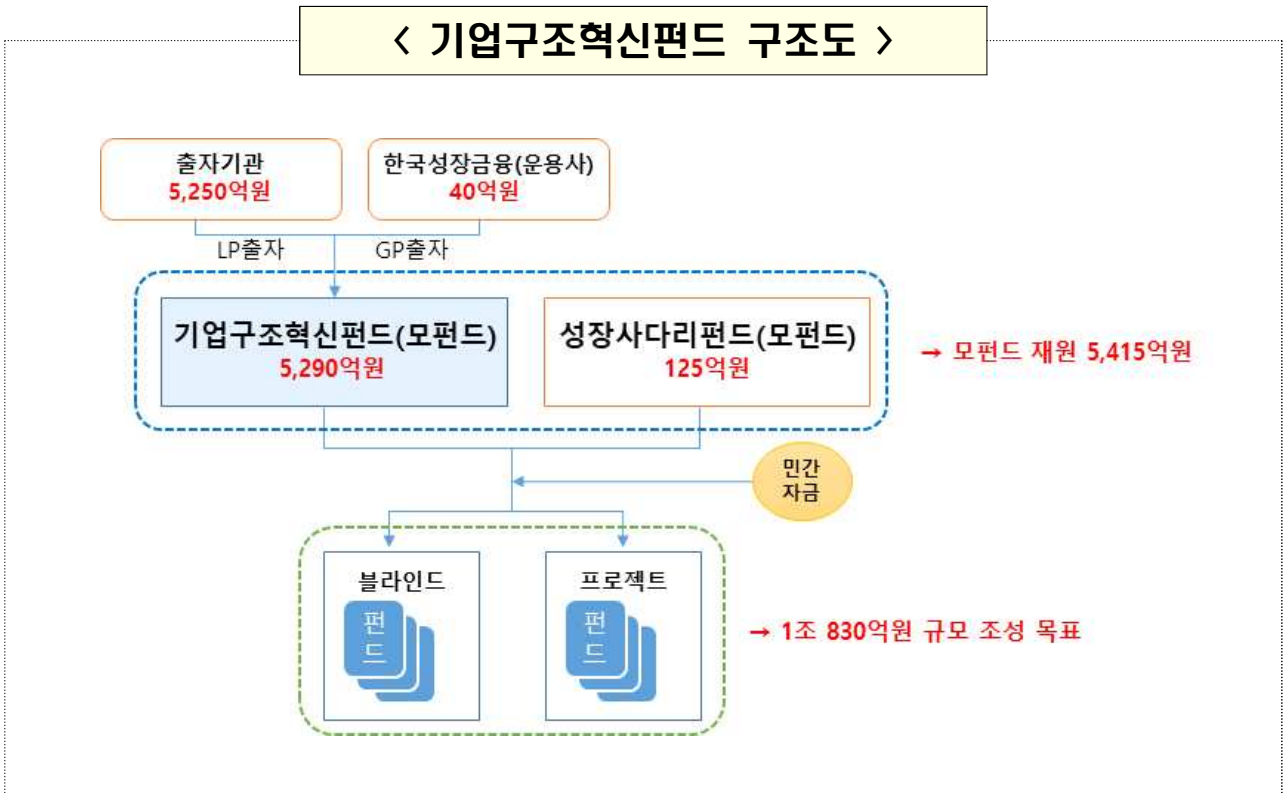
* 사후적 매칭 : 최소 모(母)펀드 및 운용사 출자금액만으로 펀드를 결성하되, 민간 자금 모집 부족금액을 공동투자의 형태로 투자기간(예시:5년) 종료시점까지 모집

4 기대효과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

□ 한국성장금융은 금번 출자사업을 통해 “그동안 위험성이 높은 투자처라 인식되어 온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Player들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, 이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여러 기업들이 턴어라운드(Turn-around) 하는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기대를 밝혔다.

□ 뿐만 아니라 “최근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한 캠코 등 다수의 금융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, 자본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* 본 출자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일정, 출자설명회 등은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 (www.kgrowth.or.kr)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.



-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와의 공동출자를 통해 총 5,415억원 규모의 출자재원을 마련
 - 총 5,29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*(모펀드)는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LP 출자금과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의 GP 출자금으로 구성
 - * LP 출자금 5,250억원 + 모펀드 GP 출자금 40억원
 - 한국성장금융이 운용중인 성장사다리펀드(모펀드)의 일부 재원(125억원)을 추가하여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사업에 활용할 계획
- 하위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, 모펀드 재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총 1조 83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 조성을 목표

Q1. 그 간의 주요추진 경과는?

| 일 정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'17.04.13 | 금융위, '新기업구조조정 방안' 발표 |
| '17.04.26 | '新기업구조조정 방안' 관련 자본시장 간담회 개최 - 참석자 : 금융위, 한국성장금융, 민간 PEF 운용사 20社 |
| '17.06.14 | 한국성장금융, '新기업구조조정펀드 T/F' - T/F 기간 : '17.6.14 ~ '17.8.14 |
| '17.08.31 | 금융위원회, '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' T/F - T/F 기간 : '17.8.31 ~ '17.10.25 |
| '17.12.08 | 기재부(산경장), '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' 발표 |
| '17.12.18 | '기업구조 혁신펀드'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- 체결당사자 : 출자기관(9개)* 및 은행연합회, 한국성장금융 *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자산관리공사 |
| '18.03 ~ '18.07 |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기관 협의 (펀드 출자 관련 세부조건 등) |
| '18.08.27 |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공고 (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) |

Q2. "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의 장을 열다 " 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?

- 현재 국내 구조조정 시장은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구분되며, 여러 한계들로 인해 기존 체계의 변화 필요성 증대
- 現구조조정 방식이 지닌 제도·관행적 한계를 극복하고, 자본시장이 지닌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場을 마련할 필요
 - **(이해관계의 단순화)** 채권자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절하고, 신속한 구조조정 대상 선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이 가능함
 - **(유연한 투자전략)** 기존 제도적 틀 내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탈피하여, 자본시장이 구사 가능한 다양하고 유연한 투자전략 활용
 - **(상시적 구조조정)** 기존과 달리 자본시장 주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며, 이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도 극대화(비용절감 등)
- 선진 외국과 달리, 그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자금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
 - 금번 출자사업을 통해 자본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해내면, 민간자금도 관심을 갖는 시장으로 점점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

Q3. 민간자금 매칭 환경을 어떻게 예상하는지?

- 현재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이 미약하고, 민간 중심의 Track Record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, 민간자금 모집의 불확실성 존재
 - 특히, 아직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출자자(LP)로부터의 자금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
- 하지만,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모험자본으로서 일부 중·후순위로 출자하여 민간 LP가 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,
 -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민간자본의 출자부담이 완화되어, 보다 원활하게 하위펀드가 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[참고자료] 성장사다리펀드 (재기지원펀드) 사례

< 재기지원펀드 1·2차 사업 펀드조성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| 구분 | 운용사 | 결성 일자 | 결성 금액 | 성장 사다리펀드 | 민간자금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|
| 1차 | 나우아이비캐피탈 | '14.8월 | 500 (100%) | 250 (50%) | 250 (50%) |
| | SG PE/ 케이스톤파트너스 | '14.8월 | 630 (100%) | 250 (39.7%) | 380 (60.3%) |
| 2차 | 에버베스트/ 유진자산운용 | '15.8월 | 1,400 (100%) | 350 (25%) | 1,050 (75%) |
| 합 계 | | | 2,530 (100%) | 850 (33.6%) | 1,680 (66.4%) |

- 기업구조혁신펀드와 조성 목적 및 취지가 유사한 재기지원펀드의 경우, 민간자금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짐
- '14년(1차), '15년(2차) 두 차례 출자사업 진행 결과, 총 2,530억원 규모의 3개 펀드가 조성되어 운용 중 ('17.12월말 기준)

Q4. 출자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는?

-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단순한 출자사업이라기 보다는, 새롭게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혁신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임
 - 이를 위해 1차년도 출자사업을 통해 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,
 - 동시에 2차년도 출자사업 규모를 미리 공유함으로써, 자본시장 Player들의 출자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촉진할 예정
- 일부에서는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경우 우려사항을 지적하는 만큼, 순차적인 자금 유입을 통해 시장을 조성해나간다는 전략

Q5. 시장친화적 펀드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은?

- ◇ 시장친화적인 펀드 구조로 ①중·후순위 부담 ②관리보수 차등 및 추가 성과보수, ③풀캐치업(Full-Catch up), ④사후적 매칭 등을 꼽을 수 있음

① 중·후순위 부담

- 하위펀드의 결성가능성 제고 및 모험자본 역할 수행을 위하여, 민간 LP가 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펀드가 중·후순위를 부담

② (주목적 투자 정도에 따른) 관리보수 차등 및 추가 성과보수 지급

- **(취지)**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
- **(관리보수 차등)** 주목적 투자 여부에 따라 관리보수율 차등 적용
 - 투자안 검토 및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구조조정 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, 주목적 투자 여부에 따라 관리보수를 차등
 - 뿐만 아니라,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 초과 여부에 따라 관리보수를 차등

- **(추가 성과보수)**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기지원 목적 투자비율이 약정총액의 40% 이상인 경우, 투자비율 범위에 따라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
 - 기준수익률(예시:IRR 6%) 초과시 모펀드에 지급될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하며, 최대 +10%p 이내로 추가 지급
- ※ 해당 내용은 운용사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 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3] 풀캐치업 (Full Catch-up)

- **(취지)** 역량있는 운용사(GP)의 참여 및 구조조정 투자건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, 운용사에 선택권 부여
 - **(내용)** 기준수익률(예시:IRR 8%)을 초과할 경우, 펀드 전체이익의 일정 비율(예시:20%)을 운용사(GP)가 수취하는 구조
- ※ 단, 풀캐치업 선택시 관리보수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며, 관련 내용은 선정 운용사와 별도 협의 예정

4] 사후적 매칭

- **(취지)** 최근 출자환경 고려시 민간자금 모집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, 원활한 하위펀드 결성 및 운용사 부담 경감을 위해 사후적 매칭 허용
- **(내용)** 최소 모펀드 및 운용사 출자금액만으로 펀드를 결성하되, 민간자금 모집 부족금액을 공동투자의 형태로 투자기간(5년) 종료시점까지 모집
 - 개별 투자시 공동투자 등의 방식으로 LP를 모집하는 사후적 매칭을 통해, 펀드 결성 이후에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간자금 유입 가능

< 매칭형태에 따른 분류 >

| 구 분 | 사전적 매칭 | 사후적 매칭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차이점 | 민간자금 최소매칭요건을 먼저 달성한 후 펀드결성 | 펀드결성 이후 他펀드와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최소매칭요건을 달성가능 |

Q6.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?

-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주로 중소·중견기업 관련 구조조정 Deal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
- 더불어 선제적 조치가 중요한 구조조정의 특수성을 감안, 사후적 구조조정(회생, 워크아웃) 이외에도 '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'을 포함

<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 >

| 펀드 유형 | 주목적 투자 항목 |
|-------|--|
| 블라인드 | ① 사전적·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%이상 투자 - 단,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%이상 투자 ②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25%이상 투자 |
| 프로젝트 | ① 사전적·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 - 단,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기지원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 |

※ 단, 사전적·사후적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출자사업 공고문 참고

Q7. 턴어라운드(Turn-around)에 성공한 기업들과의 성과 공유 방안은?

- 투자금을 받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경우, 해당 기업에게도 운용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
 - **(재원)** 하위펀드 운용사(GP)가 약정총액 기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목적 투자를 달성하여 지급받은 '추가 성과보수*'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활용
 * 상세 내용은 'Q5. 시장 친화적인 펀드 구조' 참조
 - **(활용방안)** 공유된 성과는 해당 기업 종업원의 복지 증진, R&D 투자 확대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안으로 추진 예정
- 단, 기업과의 구체적인 성과 공유 방안은 운용사(GP)가 한국성장금융에 제시하도록 할 예정

Q8. 기업구조혁신펀드 자(子)펀드의 보수구조는? (블라인드 펀드)

◇ 기업구조혁신펀드 자(子)펀드 운용사의 보수는 정상적으로 운용 시 매년 수취하는 ①관리보수와 펀드 청산시 성과에 따라 받는 ②성과보수로 구분

① (관리보수) 기업구조혁신펀드 자(子)펀드의 관리보수는 주목적 투자 및 투자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 예정

< 관리보수 적용 기준 >

| 구 분 | 투자잔액 | 미투자잔액 |
|---------|---|----------|
| 투자기간 이내 | 주목적 투자 × 연1.7% 이내 비주목적 투자 × 연1.3% 이내 | 연1.1% 이내 |
| 투자기간 초과 | 주목적 투자 × 연1.6% 이내 비주목적 투자 × 연1.2% 이내 | - |

② (성과보수) 기업구조혁신펀드 자(子)펀드의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(6%)을 초과하는 이익의 20%를 지급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함

- (풀캐치업) 단, 자(子)펀드 운용사에서 선택하는 경우, 풀캐치업(Full Catch-up)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음
- (추가 성과보수)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기지원 목적 투자비율에 따라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

※ 풀캐치업 및 추가성과보수 관련 상세 내용은 'Q5. 시장 친화적인 펀드 구조' 및 공고 내용 참고

Q9.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?

- 기업구조혁신펀드 모(母)펀드는 하위펀드의 원활한 결성을 지원하고,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출자구조로 설계
 - 하위펀드 조성시, 민간 LP는 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, 모펀드가 중·후순위를 부담하여 민간자본의 출자부담을 완화
- 모(母)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 또한 GP 출자금 및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을 전액 후순위로 출자함으로써 모험자본 마중물로서의 역할 강화

Q10. 기업구조혁신펀드 의사결정 구조는?

-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요 의사결정은 전문위원회, 출자위원회,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

< 위원회별 구성 및 심의사항 >

| 구분 | 심의사항 | 참여기관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출자기관 | 성장금융 | 민간위원 |
| 전문위원회 | - 거시전략·제도 - 기본운영계획, 연도별 운영계획 | ○ | ○ | ○ |
| 출자위원회 | - 세부 출자계획 | × | ○ | ○ |
| 투자심의위원회 | - 하위펀드 운용사 선정 - 프로젝트펀드 참여여부 결정 | × | ○ | ○ ^{주)} |

주) 전문위원회 및 출자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위원을 선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

- 전문위원회 및 출자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총 3명으로, 기업구조조정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음
 - 실제 구조조정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(주)부산시티센터 김창린 前대표를 위원장으로 하여, 법조계·학계 등에서 각 1명씩 위원 구성

Q11. 유관기관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인지?

◇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은 금융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기업구조혁신시장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이며,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

① **(기업구조혁신센터* 연계)**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"캠코") 센터에 등록된 투자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센터와 연계 등 협업을 통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자(子)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 예정

*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('18.4월)

- 자(子)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GP 입장에서는 캠코 센터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Deal Sourcing을 추진할 수 있으며,
- 또한, 투자대상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다 신뢰가능한 공공기관인 캠코를 통해 투자 유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

② **(기업구조혁신포럼)** 자본시장 내 전문단체인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성장금융과 캠코에서 후원하는 포럼으로,

-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혁신 등 시장 전반에 대한 현안에 대하여 채권은행, 민간운용사, 학계, 회생법원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소통하는 네트워크 채널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연 4회 분기별 개최 예정이며, 회원가입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(회비 無), 별도 운영위원회가 포럼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수행

※ 2018.10.18.(목)에 「제3회 기업구조혁신포럼」 개최 예정

Q12. 향후 일정 및 첫 투자 예상시점은?

- **(향후 일정)** 운용사 선정 공고 이후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으로, **10월말 최종 선정 완료 예상** (블라인드펀드 기준)



- **(첫 투자 예상시점)**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, 수시접수 및 개별 검토로 연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
- 반면,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결성 시한이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, '19년 상반기 중 투자집행 예상

Q13. 자(子)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은?

- 기업구조혁신펀드 자(子)펀드 운용사 선정은 구조조정 투자역량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 예정
 - (투자역량) 과거 CRC 등 구조조정 투자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상의 평가기간 대비 적용기간 연장 적용 (통상 10년 → 연장 15년)
 - 하위펀드의 원활한 결성 가능성을 제고를 위하여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도 상향 적용 예정

Q14. 출자 재원(5,415억원) 소진시, 향후 계획은?

-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기존 출자재원(5,415억원)이 모두 소진되어 모(母)펀드의 추가 조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
 -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등 기존 모(母)펀드 출자기관 전원의 동의를 거쳐 모펀드의 증액 여부를 협의할 예정임